



무상징령·배상명령

[부산지방법원 2017. 2. 10. 2016고합12, 2016고합219(병합), 2016초기166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박영식, 임관혁(기소), 구민기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정인 외 3인

【배상신청인】

【배상신청대리인】 변호사 최순용

【주문】

】

(변경 전 상호 ○○○△△△△△□□□□□□ 주식회사)

1.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,150,000,000원에,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600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,100,000,000원에, 피고인 4를 징역 1년 9월 및 벌금 1,10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2.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,300,000원을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,200,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3. 다만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4.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20시간의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.
5. 피고인 1로부터 266,413,821원을 추징한다.
6.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7.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